

참된 인재를 기르는 환동해권의 중심 '위덕대학교'

손 제 석 | 위덕대 총장

지덕겸비의 참된 인재양성을 위한 개교

진리탐구·인격도야·이타자리(利他自利)를 삼대 건학이념으로 하여 신라 천년의 옛 서울 경주에서 '96년 3월 개교한 위덕대학교는, 건학이념에서 볼 수 있듯이 지(진리탐구)와 덕(인격도야)이 겸비된 참된 인재양성으로 민족과 인류에 헌신(이타자리)하고자 하는 대학사명(university mission)을 설정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에 이은 이 땅 두 번째의 불교종립(진각종 산하 학교법인 회당학원) 종합대학으로, 지덕겸비의 참된 인재양성이란 대학사명은 이 설립배경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교명 '위덕(威德)'에도 그 의미는 반영되어 있다. 즉 대학본질과 관련하여 '위'는 '학문적 권위

(知)'를, '덕'은 '인격적 덕성(德)'을 나타내므로, '위덕'은 곧 '지덕겸비'를 뜻한다.

대학설립법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아교육(33개 유치원) 및 중등교육(서울 진선여자중고등학교 및 대구 심인중고등학교)을 열성적으로 행하여온 토대 위에서 위덕대학교를 개교하였는데, 이러한 교육 노하우는 대학발전의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개교 5년 만에 급속한 발전

위덕대학교는 개교 5년을 맞아 27개 학과, 일반대학원을 비롯한 4개 대학원, 학부제적생 3,500여 명, 교직원



원 180여 명, 26만 평의 부지 위에 11개 동의 교사를 갖추며 급속한 발전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대학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미 신생대학을 넘어 중견대학의 대열에 접어들었다는 성급한 진단을 내놓은 이들도 있다.

특히 금년 3월에 개원한 회당학술정보원은 규모와 시설 면에서 지역최대·최상을 자랑한다. 연면적 9,427.75㎡, 지상 4층, 지하 1층의 미려한 초현대식 건물에 N세대를 위한 각종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는 차세대 학술정보지원 센터이다. 회당학술정보원은 기능에서 중앙도서관 및 전자계산소의 두 부속기관을 '학술정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s)를 높이고 있다.

우리 대학은 이에 그치지 않고 8월 말에는 2,080㎡의 예체능관을 완공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연면적 2,684㎡의 불교학관 건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재 620명을 수용하고 있는 3개 동의 학생생활관을 보완하는 지상 10층 규모의 학생복지타운, 국제회의까지 가능한 대강당 등의 조기 건립을 위해 기초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질을 중시하는 적정규모의 내실 있는 종합대학

이와 같은 양적 확대를 진정한 대학발전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발전은 양적 확대가 질적 상승으로 전화(轉化)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대학은 질적 상승의 기본조건을 우수한 신입생 유치라고 보고, 이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21세기 회당장학금'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능계열 상위 10% 이내의 모든 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학생생활관 및 교서반 입주비용도 지원하며, 매학기 도서관입비까지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장학혜택을 주고 있다. 나아가 수능 3%와 5% 이내 입학생에게는 상기 혜택 외에도 졸업 후 국내외 명문대학원 진학비 전액 지원과 박사학위 취득시 우리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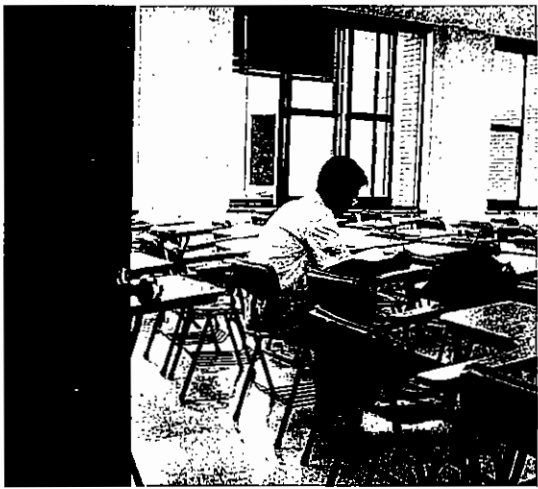
교수채용 우선권 부여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위덕대학교의 교수진은 전원 국내의 주요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3~40대의 의욕적이고 역량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과 연구·봉사 등에 있어 수월성(秀越性)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직원들도 앞서 가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행정에 선진관행을 정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위덕대학교의 질적 운영은 금년 2월 제 1회 졸업생 배출시 우수한 결과를 낳았다. 전체 85%의 취업률을 보였으며, 특히 불교학과와 경영학과·전자공학과·반도체공학과·컴퓨터제어공학과 등의 학과가 100% 취업률을 기록한 바 있다.

3단계 대학발전론과 열린 대학 지향

우리 대학은 개교시점부터 개교 10년이 되는 2005년까지의 10개년 발전계획(1996~2005)을 수립하여 대학 발전을 체계화·가속화하고 있다. 제 1단계(1996~1998



제 1학기, 2.5년간)는 '신생대학의 한계 극복기'로 설정하여 '대학 인프라의 완성적 구축'에 대학운영의 중점을 두었다. 제 2단계(1998 제 2학기~2000. 2.5년간)는 '색깔 있는 대학상 구축기'로 설정하여 '열린 교육을 향한 위덕공동체'란 특성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 3단계(2001~2005, 5년간)는 '환동해권 중심대학 확립기'로 설정하여 '질을 중시하는 적정규모의 내실있는 종합대학'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제 2단계의 '열린 대학' 개념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맞이 위한 우리 대학의 준비라 할 수 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네트워크시대로서 중심이 따로 없다.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유통이야말로 사회체제의 핵심변수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열린 사회(open society)'를 말하며, 대학 또한 열린 대학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열린 대학을 위해 우리 대학은 세 가지 방향에서 힘쓰고 있다. 제 1방향은 학문·학과 간의 열린 운영이다. '학과군제'와 '최소전공인정제' 등을 통해 다전공을 유도하고 있다. 제 2방향은 지역민·지역사회와의 열린 관계 형성이다. 사회교육원, 창업보육센터 및 산학연 컨소시엄센터(두 센터는 중소기업청이 지정)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다. 제 3방향은 열린 위덕문화공동체 형성이다. 제1~2방향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교수·직원·재학생 간의 열린 문화공동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누구나 대학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위덕제안제도와 위덕사랑 캠페인, 문화의 날 운영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

대학특성화 그리고 환동해권 중심대학

위덕대학교는 개교시부터 '세계화·지방화·정보화를 통한 환동해권 중심대학 만들기'를 특성화 전략으로 삼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모든 학과와 대학기구의 설치 또한 세계화·지방화·정보화라는 삼대 초점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성화 전략의 삼대 초점의 귀결점이 '환동해권 중심대학'이라는 점이다. 특성화를 통해 당도하고자 하는 대학 이미지와 대학내용을 압축한 개념이며, 배경적으로는 우리 대학이 21세기 세계문명의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환동해권의 삼대 거점도시인 경주·포항·울산을 지역적 입지로 하고 있는 데서 설정되었다.

세계화·지방화·정보화는 오늘날의 시대정신이므로 이 추세에 대응하면서 선도해 나가는 것은 대학으로서 필연적 과제라 하겠다. 우리 대학은 이를 '지방세계화(지역에 기초한 세계화)'와 '지방정보화(지역에 기초한 정보화)'로 대별하고 있는데, 전자는 인문사회계열의 특성화로, 후자는 이공학계열의 특성화로 연관시

키고 있다.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어문학과군(4개 학과) 및 국제관계학과를 중심으로 '환동해인 양성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맞춤양성하고 있으며, 이공학계열에서는 정보전자전기공학과군(6개 학과) 및 컴퓨터공학과군(4개 학과)을 중심으로 산·학·연 컨소시엄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등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정보화(산업발전)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위덕대학교의 발교문화연구원 및 신라학연구소와 대학박물관은 환동해권 문화에, 아시아·태평양연구소는 환동해권 정치·경제에, 산업기술연구소는 환동해권 산업기술에 각각 연구의 중심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은 '환동해권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96년에는 미국 Claremont College연합체, '97년에는 중국 중앙민족대학 및 요녕대학교, 2000년 1월에는 일본 벳부대학 등과 현지방문을 통해 학술교류협정을 맺어 기초적인 교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극동 러시아의 주요대학과도 학술교류협정을 맺어 이 네트워크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동해권 중심대학으로서의 위덕대학교는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환동해권 4개국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국제연합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을 뒷받침하는 핵심대학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가일층 분발할 것이다. **김영**